

- 주요 뉴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대체로 전월비 보합 예상. 기존 금리 전망 지속될 가능성
 - IMF 총재, 트럼프 관세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을 초래
 - 중국 재정부, 경기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 세부 내용은 미흡
 - 일본은행 관계자,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12월 고용 호조,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 등이 영향
 - 주가 하락[-1.9%],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1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 기대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주요 경제지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내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큰 폭 상승
독일은 미국과 영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7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2% 상승,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1/10일	1/3일	전주말대비			1/10일	1/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827.0	5,942.5	-1.94%	국채금리 10y	미국	4.76%	4.60%	+16bp
	유럽	511.50	508.19	+0.65%		독일	2.60%	2.43%	+17bp
	중국	3,168.5	3,211.4	-1.34%		영국	4.84%	4.59%	+25bp
	일본	39,190	휴장	-1.77%	CDS 5y	한국	40bp	38bp	+2bp
	한국	2,515.8	2,441.9	+3.02%		중국	62bp	64bp	-2bp
환율	달러지수	109.65	108.95	+0.64%	위험지표	EMBI+	358	357	+1bp
	유로화	1.0244	1.0308	-0.62%		VIX	19.54	16.13	+21.14%
	엔화	157.73	157.26	-0.30%		WTI유	76.56	73.96	+3.52%
	위안화	7.3326	7.3215	-0.15%	원자재	구리	430.4	407.4	+5.66%
	원화	1,472.0	1,469.7	-0.16%		금	2,689.8	2,640.2	+1.8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소비자물가, 대체로 전월비 보합 예상. 기존 금리 전망 지속될 가능성

- 1/15일(수) 작년 12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될 예정. 시장에서는 전월에 비해 헤드라인 CPI의 월간 상승률은 동일하고(0.3%→0.3%), 연간 상승률은 소폭 높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예상(2.7%→2.8%). 근원 CPI의 경우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각각 오름세 둔화(0.3%→0.2%) 및 보합(3.3%→3.3%)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예상이 정확하다면,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정체 상태임을 의미. 그 동안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주요 항목(자동차, 주거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은 일반적인 호황기처럼 수요 증가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인 것으로 판단(Bloomberg Economics)
- 이를 종합할 경우, 이번 결과는 그 동안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연준 주요 인사들의 시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최근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들 역시 고용이 매우 견조한 상태임을 시사하며 이에 부합. 현재 CME의 FedWatch는 금년 1회(6월,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
- 한편 연준은 물가 상황 자체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강화, 불법 이민자 추방 확대, 재정정책 조정 등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이에 부합하는 명확한 징후도 없다고 진단(Bloomberg Economics)
- 이번 주에는 1/14(화) 작년 12월 생산자물가(PPI)도 발표될 예정. 헤드라인 PPI는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 오름세 둔화 및 보합(각각 0.4%→0.3%, 3.0%→3.0%)을 나타낼 전망. 근원 PPI의 경우 보합 및 오름세 둔화(각각 0.2%→0.2%, 3.4%→3.2%)가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트럼프 관세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을 초래

- 17일 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 다만 금년에도 세계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디스인플레이션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 필요

- 무살렘 총재는 양호한 경제 성장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금리인하는 점진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 아울러 자신이 판단하는 중립금리는 여타의 연준 위원들이 거론하는 것보다 조금 높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의 금리가 생각보다 덜 제약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 Citigroup, 금년에도 세계적인 주가 상승세 이어질 전망. 양호한 기업실적을 기대

- 금년에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 및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되고, 이는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 이에 MSCI 전세계 지수는 작년 말(1035.46) 대비 10% 오른 11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특히 세계 주요 기업의 금년 주당순이익(EPS)은 전년비 10%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영국 재무장관, 중국과의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로 6억파운드 규모의 혜택 기대

- 리브스 장관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고 특정 수출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 이를 통해 5년간 경제에 6억 파운드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구체적으로 양국 간 증시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백신·비료·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 중국 재정부, 경기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 세부 내용은 미흡

- 라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금년에 강도, 효율성, 적시성 측면에서 작년에 비해 좀 더 강력한 선제적 재정정책 시행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 다만 이번에도 세부 내용이 부족하여, 일부에서는 실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지적

■ 일본은행 관계자,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상

-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23~24일 열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 현지시각 기준)

- ECB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국 12월 수출입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취임 직후 대규모 행정명령 예고, 캐나다는 트럼프 관세에 보복 경고

- **트럼프, 취임 직후 대규모 행정명령 예고** : 존 바라소 상원 원내부대표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경제와 국경 관련 다수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는 충격과 공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언. 또한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트럼프 관세에 보복 경고** :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각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대상 품목에는 세라믹, 철강, 가구, 에너지 제품 등이 포함. 트뤼도 총리 역시 필요 시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차기 경제자문위원장 내정자, 20% 관세 도입 필요** : 스티븐 미란 차기 위원장 내정자는 현재 2%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20~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러한 고관세가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대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
- **IMF,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금리 상승** :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트럼프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세계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발언
- **러시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 :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과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월츠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역시 수일 혹은 수 주 내에 양국 정상이 통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러시아는 트럼프의 대화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회담의 실제적 진전은 트럼프 취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해외시각] 트럼프의 과세국 처벌, 조세갈등 격화시킬 우려, 트럼프 정책은 실행 보류할 필요

- **트럼프의 과세국 처벌, 조세갈등 격화시킬 우려** : 공화당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EU의 최저법인세 15% 부과 정책을 겨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해당국에 25%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글로벌 조세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Financial Times)
- **트럼프 주요 정책, 실행 보류할 필요** : 실업률이 4.1%이 기록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 이민자 추방 확대, 감세 등의 정책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 특히 이민자가 건설노동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자 추방은 노동시장 경색과 주택공급 차질 초래할 소지(Bloomberg)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전세계 채권금리, 상승세 지속. 투자 관점에서는 채권 매수가 유리할 가능성 - WSJ**
(A Bond Selloff Is Rocking the World. You Might Want to Take the Other Side.)
 - 지난 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4.76%) 기록. 아울러, 미국 장기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과 27년래 최고치를 경신한 영국 국채금리(30년 만기, 5.4%) 등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 하지만, 지금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 매수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
 - 첫째, 자국의 화폐로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들이 채무불이행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 둘째, 여전히 남아있는 금리인하 가능성(미국, 금년 1~2회). 셋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기에 상대적으로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 넷째,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이 어려움을 겪으면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시행
- **미국 달러화 패권, 관세보다 더 강력한 강압수단으로 작용할 소지 - Financial Times**
(Dollar dominance means tariffs are not the only game in town)
 - 지금까지 트럼프는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위협에 초점. 하지만 경쟁국 압박과 관련하여 달러화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관세 보다 더욱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은 전세계 금융서비스의 80~9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 실제로 트럼프는 BRICS를 견제하면서 달러화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역시 브래튼우즈 체제 재정립 및 플라자 합의 재현을 언급하고 미군 주둔국들의 달러화 채권 매입 의무화를 시사. 다만 이러한 달러화의 무기화는 오히려 각국의 脫달러화 가속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트럼프 자문단의 연준 개편안, 연준 독립성 훼손 및 인플레이션 유도할 우려 - 블룸버그**
(Trump Plan to Politicize the Fed Will Spur Inflation)
 -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미란과 재무부 비서실장 지명자 카츠가 연준 개편안을 제시. 주요 내용은 대통령에 연준 이사 및 지역 연은 총재 해임권 부여, 이사 임기 단축(14년→8년), 의회의 5년 단위 연준 예산 승인 등을 포함.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연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고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소지
 -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편이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정치적 압박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연준 체제가 그 동안 물가안정 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록.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거스른다면, 이에 따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